김진철 교수의 신나는 실전 골프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

클럽 페이스 열어놓고 그립 잡아야

■ 벙커 샷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가장 '머리 아픈 샷'은 무엇일까?

필드에서의 트러블 샷(trouble shot·치기 힘든 샷)은 여러가지이다. 물론 골퍼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벙커에 빠진 볼을 쳐야하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샷 중 하나일 것이다. 벙커샷에 대한 두려움은 그린의 깃발을 향해 치기보다는 벙커에 탈출하는 것에 급급하게 만들며 그로인해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어려워하지 말라. 벙컷샷은 가장 쉬운 리커버리샷(recovery shot·실책을 한 후 이것을 만회하기위해 잘 친 샷)의 하나'라고 말한다. 골퍼 워터하겐은 "벙커샷은 볼을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샷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만큼 벙커샷이 힘들지만 잘 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벙컷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페이스를 열어놓고 그립을 잡는 것이다. 벙커에 들어가기 전 주변에서 오픈그립을 완벽히 갖추고 들어가는게 좋다. 이러한 그립을 위해선 모래 담은 종이컵을 클럽페이스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픈해 잡는 연습을 하는게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벙커샷 때에는 클럽 페이스와 스탠스 그리고 허리와 어깨 등을 오픈 자세로 취한다. 또한 목표에 대하여 30도 정도 왼쪽을 향하고 체중은 왼발에 많이 싣는게 좋다. 실제로는 목표의 왼쪽을 겨냥하여 스윙을 하게 되는 것 이지만 클럽페이스가 30도 정도 오픈으로 되어 있으므로 볼은 홀컵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클럽페이스를 오픈 하면 클럽의 로프트가 보다 크게되어 모랫 속의 볼이 보다 더 잘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클럽페이스를 열면 열수록 모랫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실수는 적어진다. 사실 클럽페이스를 60도 이상으로 열어도 관계없다. 그래도 볼은 벙커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벙커샷에선 샌드웨지의 바운스를 정확하게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발 모래속 깊이 클럽 짧게 쥐고 모래 보며 스윙 팔로우는 길게

다음은 발의 위치. 벙커샷에서 스탠스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양 발을 모래속으로 비벼넣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스윙을 해야한다. 특히 모래가 부드러울 땐 골프화의 바닥 위까지 모래에 파묻히도록 깊게 모래속으로 비벼 넣는다. 그러나 발이 모래 속에 깊게 묻힌 만큼 볼과의 거리가 가까워 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왼팔을 충분히 펴고 스윙할 수 있도록 클럽을 짧게 쥐어야 한다.

골퍼들 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소 그립보다 5cm 정도 아래를 잡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클럽헤드에 좀더 가까이 감으로써 컨트롤이 잘 되게 한다.

즉 그립을 짧게 잡으면 스윙때 클럽헤드에 대한 감각이 증가하고 컨트롤하기가 좋아진다.

또한 벙커샷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샌드웨지의 바운스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바운스는 샌드웨지의 넓고 둥근 소울을 말하며 클럽헤드가 모래를 쉽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습하면 도움이 된다. 첫째, 볼 없이 샌드웨지를 가지고 벙커샷 준비를 한다. 둘째, 완벽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후 오른손으로만 클럽을 잡는다. 셋째, 한 손으로 스윙하되 오른팔을 쭉펴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클럽헤드가 모랫 속을 지나갈 때 깊이 파기보다는 클럽의 바운스를 이용하여 미끄러지도록 한다.

벙커샷 스윙 때는 볼이 아니라 모래를 친다.

먼저 그린 주위에서 벙커샷을 위한 셋업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볼을 보고 치는 일반 샷과는 달리 볼 뒤 5cm 지점을 쳐다 본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절대 볼을 쳐다봐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리고 볼을 의식하지 않고 모래를 쳐다보며 스윙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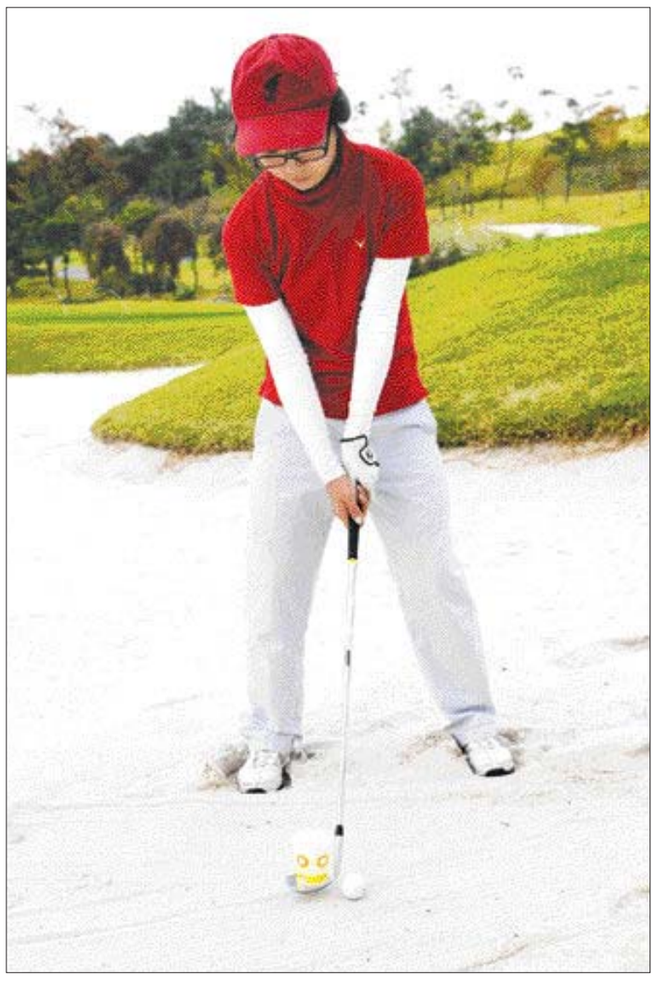
벙커플레이에서 클럽헤드를 다운스윙때 감속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동작이다. 모래는 적은 스피드만 남은 클럽헤드를 아주 쉽게 모래에 잠기게 하며 이는 벙커 안에 여전히 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스윙 보다 팔로스로우를 더 길게하면 좋은 벙커샷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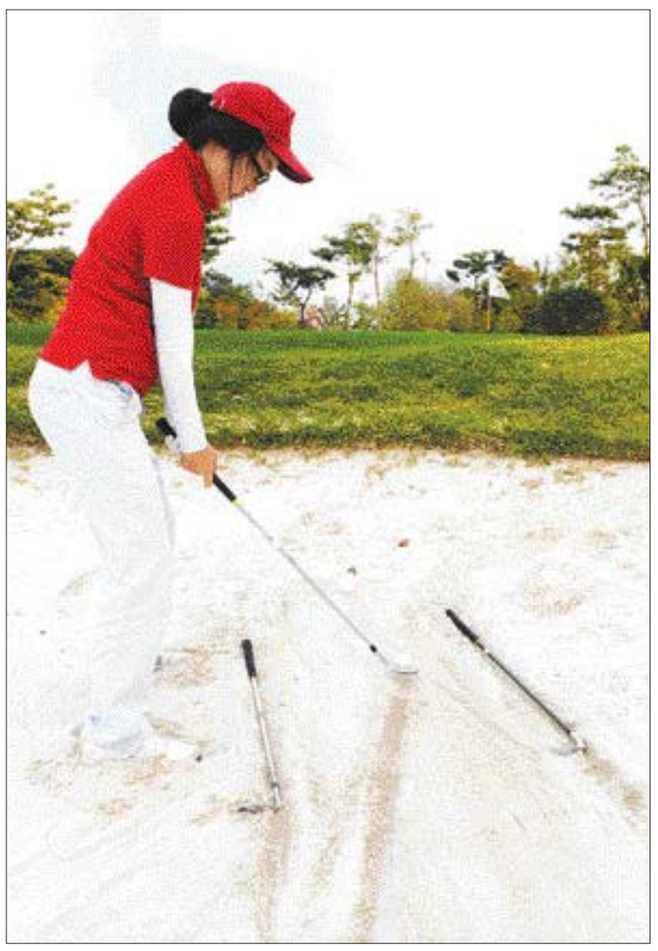
벙커샷에서 볼의 위치는 대부분 스탠스 중간에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볼의 위치는 피칭과 칩샷땐 좋으나 벙커샷 땐 너무 뒷쪽에 놓여있어 클럽헤드가 급격하게 내려와 모래를 깊게 파게 된다. 이는 스윙 에너지를 잃게되어 볼을 벙커에서 빼 내기가 힘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드라이버 칠때와 같이 볼을 스탠스 왼발 뒤발꿈치 앞에 놓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클럽페이스를 오픈하기 위해 모래 담긴 종이컵을 클럽 페이스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어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벙커샷 자세는 목표지점 보다 30도 정도 왼쪽을 향해 샷하는게 좋다.

골프 에티켓

벙커샷 뒤 모래 고르게 다져줘야

벙커샷이 끝나면 골퍼들이 남긴 발자국과 임팩트시 파헤쳐진 모래를 고르게 다져줘야 한다.

갈퀴를 이용해서 자신이 남긴 흔적을 지워야 하는 것. 이는 다음 골퍼가 벙커샷 때 좋은 라이에서 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자신도 좋은 라이에서 벙커샷을 해야하며 뒤에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골프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골퍼가 지켜야 하는 예절이다.

또한 벙커샷을 하기위해 벙커에 들어설 때는 볼과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어가야 한다. 이것도 벙커 내 발자국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골퍼들의 예절 중 하나이다.

시추에이션 골프 룰

벙커 속 타인의 볼 샷 '2 패널티'

Q : 벙커를 일단 벗어난 볼이 경사면에 멈춰있어 모래를 고르고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굴러들어왔을땐?

A : 볼이 해저드 밖에 있으므로 모래를 고르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곳으로 볼이 다시 굴러들어와 멈추어도 패널티는 없다. 단 볼이 다시 벙커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모래를 계속 고르거나 연습을 하면 2패널티를 부과한다.

Q : 동반경기자의 벙커샷으로 인하여 같은 벙커 안에 있는 자신의 볼에 모래가 뒤집어 씌여졌을땐?

A : 동반경기자의 샷으로 인해 라이가 변하였다면 형평성에 의해 패널티 없이 최대한 원래의 라이를 복원할 수 있다.

Q : 절반 정도 모래에 묻혀있는 볼을 확인도 하지않고 샷을 하였는데 동반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A :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해저드 안에서도 볼의 확인이 가능해진 대신에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경우에도 2패널티를 부과하게 되었다. 자신의 볼로 정정하여 플레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고, 동반경기자는 라이를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주의 골프용품

저스핀·고탄도 최대 비거리 추구

프로기아 프리미엄 레드

'프리미엄 레드' 시리즈는 프로기아(PRGR) 브랜드 중에서 가장 고기능 '프리미엄'을 키워드에 개발한 신상품군으로서 '프리미엄 레드 드라이버'는 최대 비거리를 추구한 신 경량드라이버. 비거리 증대의 기본인 저스핀·고탄도 샷을 실현하기 위해, 클럽 헤드는 솔 후방을 늘린 샬로우 백 형상, 잉여 중량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크라운부, 토우 부분의 케미컬 밀링 처리(화학적 평삭), 상부를 얇게 하부를 두껍게 한 '더블 티탄 페이스'를 갖추었다. 또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에 용이한 길어진 샤프트(46.5인치)도 선보인다.

그리고 샤프트에 나노테크놀로지로 개발한 신소재 '플러렌'을 사방에 배합, 게다가 미디엄·버트 구조로 더욱 경량화되어 헤드의 휘어져 돌아오는 향상시켜, 길어진 샤프트의 단점인 헤드가 늦게 따라오는 현상을 막아주고 오히려 가속하는 샤프트가 완성되었다. 또 그립력이 뛰어난 경량(30g) 그립을 채용하였고 타구음도 뛰어난 소프트한 타감설계의 클럽이다.

취재협조:골프프라자 062-368-7800

급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대지면적 : 1770㎡(535평)
■지 역 : 준 주거지역
■건축면적

구 분	면 적(㎡)	용 도
지하1층	1147.07	주차장
1층	584.2	휴게음식점 외
2층	584.2	예식장
3층	493.65	예식장
4층	493.65	식당
5층	493.65	식당
계	3796(1148평)	

■추천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우나, 체육시설 등

■매매가 : 25억(대출금 13억 포함)

상담 전화 ☎ 011-625-8153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지역 : 전남 · 북, 기타지역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

부 동 산 투 자 클 럽
T. 011-641-0925, (062) 515-4985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입구)대지면적 7,665㎡
매매가 3.3㎡ 당 32만원
- 식당, 체육시설, 농장, 단란주점, 숙박업
- 모든 시설 허가 필, 현 성업 중
▶식당(담양리조트 인근) 대 891㎡/건 155㎡ 매매가 1억5천
▶고시텔(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건 560㎡
-룸52(룸당 월 임대료 23만원)
- 5월 준공, 5층, 최신시설, 풀 옵션 매매가 8억 5천
▶상가주택(오차동 대단지 아파트입구) 대 496㎡/건 1487㎡(6층)
-매매가 17억
▶상가건물(용봉동) 대 273㎡/건 486㎡(3층) - 주차편리
- 매매가 4억1천

토지매매
◉ 대지 764㎡(신촌동-광주공항과 월곡동 사이) 버스승강장 접, 전철역 5분거리) 원룸, 투룸, 빌라부지 최적 매매가 ㎡당 36만3천원
◉ 대지 683㎡(진월동 광주대 입구) 제 3종 주거지역 매매가 11억
◉ 대지 1,363㎡(화정동, 제 3종 주거 원·투룸 매매가 ㎡당 46만원
◉ 농지(전) 무안군 운남 23,600㎡(비닷가, 관리지역) 매매가 3.3㎡당 20만원
◉ 농지(전) 광산구 오산동 1,927㎡(전원주택최적) 매매가 ㎡당 6만원
◉ 농지(전) 장등동 2,050㎡(자연녹지지역) 매매가 1억3천5백
◉ 농지(답) 송죽동 1,901㎡(현황-전, 각종 유실수 1000여주 식재,전원주택 최적) 매매가 ㎡당 9만5천원
◉ 임야(담양창평) 3,340㎡(계획관리지역, 펜션공사 중 매매가 4억5천
◉ 임야(남평읍 우산리) 16,811㎡(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천

점포임대
◉280㎡ (4층 건물 중 1층, 용봉동 북개도로 8차선 접)
-권리금없이 임대가 3억8천(전세 월세 조정가)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 인 중 개 사 무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09.10.15.(목) ~ 2009.10.20.(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종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f.062)233-3117